



음식료/유통 Analyst 박상준, CFA sjpark@kiwoom.com

유통

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관련 Comment

◎ 신세계그룹, 올해부터 계열 분리 공식화

>> 신세계그룹은 전일 정기 임원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,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온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의 계열 분리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힘

>> 이에 따라, 정유경 총괄 사장이 (주)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였으며,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가는 전일 각각 +1.5%, +2.2% 상승 마감함

◎ 실적 영향: 단기 실적 전망에 큰 영향 없겠으나, 향후 사업 방향성 변화에 주목할 필요

>> 단기적으로 이번 언론보도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파트너십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. 따라서, 단기적으로 해당 이슈가 국내 소매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.

>> 다만, 계열 분리 이후,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비즈니스 기회 및 리스크가 분리되면서, 신규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방향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

◎ 주요 지분 관계 변화 가능성에 관심

>> 향후,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음

>>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, 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3% 미만이어야 하고(신세계, 이마트 등), 비상장상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10%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(에스에스지닷컴 등)

>> 따라서, 신세계, 이마트, 에스에스지닷컴 등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성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0월 30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